

부산의 극장 부산좌(釜山座) 연구

- 1907년에서 1930년 1차 재건 시점까지 -

김 남 석*

| 목 차 |

- I. 문제제기
- II. 부산좌의 출범(1907~1923)
- III. 지도로 보는 부산좌(1920~30년대)
- IV. 부산좌의 설립자와 운영자
- V. 부산좌의 상연 콘텐츠와 극장의 기능
- VI. 결론

| 국문초록 |

부산좌는 1907년 7월 15일에 건립되어 약 16년 동안 운영되다가, 1923년 3월 자체 화재로 전소되면서 소실된 부산의 지역 극장 중 하나이다. 극장 위치는 당시 행정 구역상으로 부산부 부평정(현재 부평동) 2정목이었고, 사주는 大池忠助(오이케 타다스케)를 비롯한 부산의 유력 상인들이었다. 부산의 유지들은 합자 형식으로 자본을 투자하여 대형 극장 부산좌를 창립하고, 초창기 운영에 나선 바 있다. 1907년부터 1914년의 기간은 부산좌 운영 초창기에 해당한다. 이때 극장 운영에서 주민 연예 대회나 소인극 공연 등의 지역 행사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렇다

*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darkjedi@dreamwiz.com

고 연극이나 영화 등의 상연이 근절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극장에서 공연되는 연행 장르에 대한 문제의식에 상대적으로 둔감했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1915년 千歲定吉이 흥행주로 가담하면서, 연쇄극을 비롯한 다채로운 상연 양식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연극 공연의 전문화와 극장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운영 방안이 도입되어 나갔다. 개선된 운영 방식은 당시 부산 지역민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지지를 얻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부산좌는 부산 본정·남빈정·부평정을 잇는 부산 극장가(지금의 남포동과 자갈치 시장 일대)에서도 손꼽히는 주요 극장으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1923년 극장 내 발화로 인해 인근 건물 24채와 함께 전소되고 말았다. 부산좌로서는 한층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무산시키는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부산좌에 대한 부산 주민들의 생각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소실 이후에도 부산좌 재건 여론이 제기되었고, 이를 틈타 大池忠助는 신 부산좌 구상안을 독려하기도 했다. 특히 1929년에는 무려 9만원을 들여 신 부산좌를 건축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상적 대극장’)이 발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중앙극장’의 건립으로 귀결되고 만다. 비록 이렇게 건립된 중앙극장은 부산좌의 이름을 물려받은 극장은 아니었지만, 이 극장 신축으로 인해 부산좌가 함축하고 있었던 대극장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 부산, 부산좌, 극장, 일제 강점기, 오이케 타다스케(大池忠助)

I. 문제제기

일제 침략기(강점기 포함) 무렵, 부산좌는 흔히 부산을 대표하는 극장으로 널리 인정되는 특별한 지역 극장이었다. 당시 부산에는 여러 극장이 현존하고 있었고, 그중에는 부산좌보다 더욱 오래된 극장(대표적으로 행좌)도 분명 있었지만, 그럼에도 부산좌는 여러 모로 부산의 극장을 대표하는 극장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부산좌가 대형 극장이었고, 건축 양식이 독특할 정도로 미려한 극장이

었으며, 실제로 부산의 요지를 차지한 극장이라는 특성(장점)에서 연유할 것이다. 물론 부산좌의 경영을 주도하는 이가 부산을 대표하는 상인이었다는 점도, 이러한 보편적인 관념을 확산시킨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의외로 이 극장에 대해 지금까지 실시된 연구 혹은 조사 결과는 소략하기 이를 데 없다. 특히 과거 1910년대의 ‘부산좌’의 사정 혹은 그 이후의 부산좌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언급과 진술이 이어졌지만, 사실 부산좌가 여러 차례 신축 혹은 재건을 통해 서로 다른 형태의 극장으로 존재했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되지 못하는 형편이다(본 연구에서는 1930년 일차 재건 시점까지를 기본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예외적으로 홍영철의 연구가 제기되면서 일정 부분 해명된 측면도 없지 않다. 다만 다소 진전된 성과에도 불구하고, 홍영철의 정리 역시 소략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한계를 지니고 있어 보완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부산좌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아직 연구 상의 한계로 남아 있다고 해야 한다. 다만 그의 기본 조사는 부산좌에 대한 몇 가지 오류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그의 기본 연구는 주요 참조 사항이 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문제(점)와 한계를 인식하고 부산좌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도모하는 동시에 부산좌의 실체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 결과를 이끌어낼 목적 하에 구상 집필되었다. 따라서 기억과 풍문에 의존한 기본 연구 방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으며(불확실한 출처의 후문 배제), 이를 통해 현재 부산좌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숙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문헌과 사진에 의존한 객관적 연구에 집중하고자 했다.

전술한 대로 부산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는, 전술한 홍영철의 저

술이 대표적이라고 하겠다. 홍영철은 부산의 영화 역사를 통시적으로 다루면서, 소위 ‘부산의 극장가(벨트)’에 존재했던 각종 극장들을 소개하고 정리한 성과를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일제 강점 초창기 남포동 일대의 극장(들)을 핵심 대상으로 다루면서 행좌, 송정좌 등과 함께 부산좌를 주요 극장으로 언급한 바 있다.¹⁾

이러한 홍영철의 연구 성과는 여러 모로 참조되고 또 응용되었다. 특히 극장의 위치 비정과 관련하여 홍영철은 흥미로운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행좌는 남빈정(남포동)에, 송정좌는 행정(광복동)에, 부귀좌와 부산좌는 부평정(부평동)에, 변천좌는 본정(동광동)에, 동양좌는 부평정(부평동), 질자좌는 목도(영도)에, 옥관은 행정(창선동)에 위치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²⁾ 이러한 그의 주장에 의거하면, 현재 부산의 남포동 일대가 일제 강점기에도 일종의 극장가(벨트)를 형성하고 있었고, 부산좌는 이러한 극장 벨트 중에서도 중심 위치를 차지하는 극장이었다.

II. 부산좌의 출범(1907~1923)

1. 문헌으로 보는 부산좌의 기원

부산좌는 명치 40년, 서기 1907년에 개장(개장식 거행)하였다.³⁾ 개장식이 거행된 일자는 정확하게 7월 15일이었다.⁴⁾ 그러니까 부산좌는

1) 홍영철, 『부산 영화 100년』, 한국영화자료연구원,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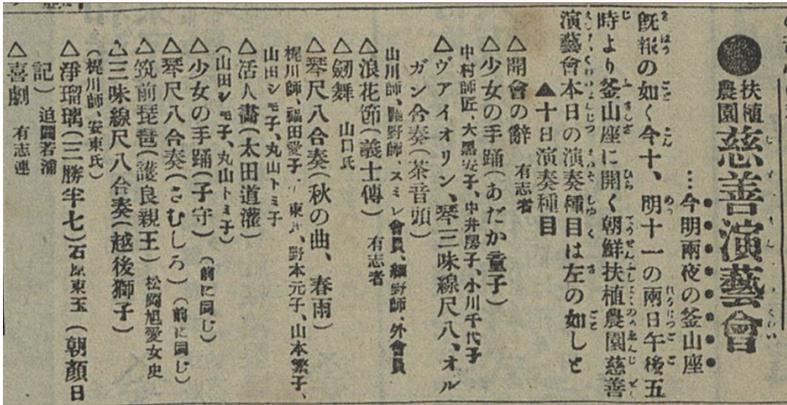
2) 근대극 도입기 부산의 극장과 위치 그리고 소유주에 관한 정보는 다음의 책을 참조했다(홍영철, 『부산극장사』, 부산포, 2014).

3) 『부산일보』 1916. 4. 16.(조간) 5쪽, ‘부산좌[釜山座]의 모양 교체 ; 3층을 없애다.’

4) 『부산일보』 1915. 10. 13.(조간), 5쪽, ‘부산좌의 개량 ; 경영자는 천세[千歲] 소방조 소두[小頭].’

1907년 7월(15일)에 개장하여 1910년대에 활발하게 운영된 극장이었다. 이후 부산좌는 1923년 자체 화재로 소멸되었고, 소멸 후에 재건에 대한 논의가 주기적으로 일어났다.

현재 『부산일보』에서 발견되는 부산좌에 대한 최초 기사는 1914년 무렵의 아래 기사이다. 적어도 이 기사는 1914년에 부산좌가 운영되고 있었다는 증거로 유력하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해당 기사를 살펴보면 부산좌가 이미 성업 중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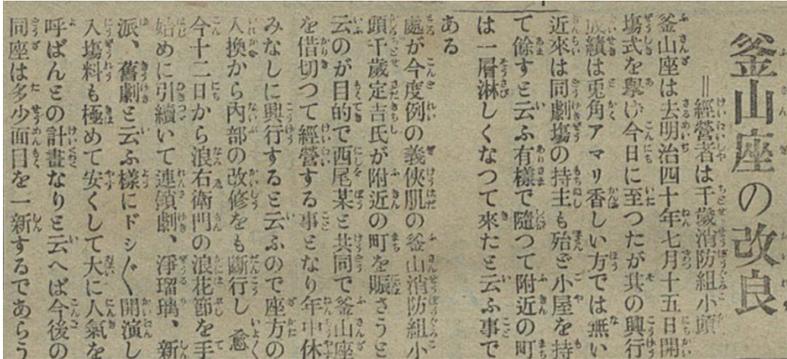


<그림 1> 부산좌에서 자선연예회 개최 소식⁵⁾

위 기사를 검토하면, 부산좌에서 1914년 12월 10일과 11일에 걸쳐 양일간 ‘자선연예회’가 개최되었다. 이 연예회를 개최한 부식농원은 굴지의 회사(재단법인)로, 전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단체였다. 그렇다면 부산좌는 이러한 행사를 담당할 정도로 당시 부산 지역에서 공연장으로 주목받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5) 『부산일보』, 1914. 12. 10.(조간), 5쪽, ‘부식농원[扶植農園] 자선연예회; 오늘 밤 부산좌[釜山座]’.

이 시점에서 주목할 점은 1914년 기사(들)을 통해 파악되던 부산좌가 1915년 시점에서 크게 변모했다는 점이다. 부산좌의 변모가 확인되는 가시적 시점은 1915년 10월이다. 이때 부산좌는 개량되기에 이르렀다.



<자료 1> 부산좌의 개량⁶⁾

사실 1914년 이후 1915년까지 부산좌의 운영 상황이나 공연 레퍼토리에 대한 충분한 자료(계재 기사나 관련 언급)는 많지 않은 편이다. 특히 1915년을 기점으로 부산좌의 경영 방식에 달라진 점을 찾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위의 기사에서 거론하는 ‘개량’의 확실한 의미를 파악하기란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부산좌의 개량은 두 가지 측면에서 확실하다고 해야 한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사주 혹은 관주가 아닌 흥행주(경영주)가 별도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흥행주는 일종의 위탁 경영자를 일컫는 개념으로 극장을 소유한 사람과 별도로 극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경영자를 가리킨다.⁷⁾ 이러한 개념은 주로 극장의 레퍼토리를 책임지

6) 『부산일보』 앞의 기사(1915. 10. 13.).
 7) 이호걸, 『식민지 조선의 문화사업 극장업』, 『대동문화연구』 69, 2010, 181~183쪽.

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익 일체를 관리하는 새로운 경영 방식의 도입을 뜻하는데, 1915년 시점에서 부산좌의 경영(권)은 실질적으로 부산 소방조의 조두 千歲定吉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千歲定吉이라는 흥행주의 역사적 등장은 부산좌의 운영이 1915년을 기점으로 변모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기점을 전후하여, 가장 크게 달라진 점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1915년 10월 이후 부산좌 관련 기사들은 이러한 변모(점)에 대해 적지 않은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흥행주의 등장이 의도하는 바를 먼저 살펴보자. 일제 강점기 극장 경영에서 실질적인 경영권의 인계는 다른 지역의 극장 사례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한다. 가령 함흥의 함흥상업회는 흥화조합을 설립하여 동명극장을 설립 운영하기에 이르렀지만, 경영의 편이와 이익 확대를 위해 위탁 경영자로 김영선이라는 인물을 지명한다.⁸⁾ 김영선은 1920년대에 개관한 동명극장의 연예부를 담당했으며, 재신임을 통해 1930년대에도 위탁 경영을 이어갔으며,⁹⁾ 영흥극장 개관 시에는 이를 운영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올 정도로¹⁰⁾ 함경도 일대에서 극장 경영에 관한 전문가로 인정받는 인물이었다.

이러한 흥행주의 임명은 경영의 합리성 혹은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다. 따라서 부산좌의 경우에도 千歲定吉을 통해 변모된 점을 찾는다면 이러한 효율성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1915년 10월 무렵 부산좌의 가장 달라진 점은 연쇄극의 등장이었다. 특히 千歲定吉 취임 이후 집중적으로 연쇄극에 대한 상연이 이어진다.¹¹⁾

연쇄극 상연에 대해서는 이후의 장(활동사진관으로서 부산좌)에서

8) 김남석, 『함흥의 지역극장 동명극장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44, 2015, 79-83쪽.

9) 『조선일보』 1936. 5. 17. 7쪽, ‘동명극장치분문제 임대차제로 낙착’.

10) 『동아일보』 1935. 10. 13. 3쪽, ‘영흥극장(永興劇場) 수개관(遂開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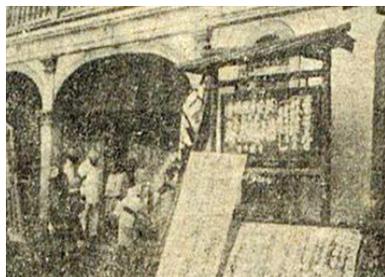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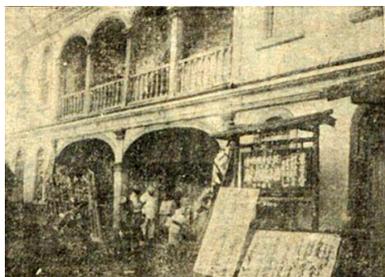
11) 『부산일보』 1915. 10. 17.(조간) 5쪽, ‘부산좌의 연쇄 연극’. 『부산일보』 1915. 10. 21.(조간) 5쪽, ‘부산좌의 연쇄 연극’. 『부산일보』, 1915. 10. 25.(조간) 3쪽, ‘부산좌의 연쇄연극 대할인’.

보다 진전된 논의를 펼칠 것이기에 여기서는 그 변화 요인으로만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콘텐츠의 변화와 함께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극장 환경의 변화였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극장 외관과 시설의 정비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장에서 극장의 외관 변화를 통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千歲定吉의 등장은 기본적으로 극장 운영 방안의 변화였고, 세부적으로는 상연 콘텐츠의 다변화와 극장 시설의 재정비로 요약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1914년 자료에서 나타나듯 다소 소인극적 공연(상연)에 매몰되어 있었던 부산좌에, 전문적인 경영 방식이 도입되는 기미가 나타났다. 이러한 기미가 1915년 흥행주의 등장으로 확인되는 부산좌의 내발적인 변모라고 할 수 있다.

2. 사진으로 보는 부산좌의 정경

다음은 1915년 부산좌의 1층 시설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여주는 사진이다. 비록 건물의 전체가 포착된 사진은 아니라고 해도, 1915년 경 부산좌의 특징을 일별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림 2> 1915년 8월 부산좌 1층 광경¹²⁾ <그림 3> 부산좌 1층 확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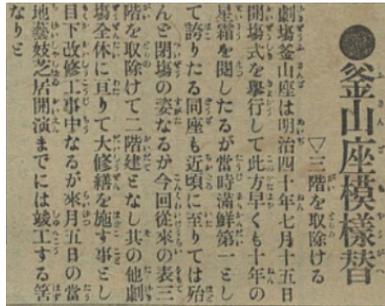
12) 『부산일보』 1915. 8. 31. 3쪽, ‘월리[越路] 개장 전의 부산좌’.

좌측 부산좌 사진은 극장 입구와 매표소 그리고 상연 예제 광고판을 보여주고 있다. 극장 입구는 아치를 이루고 있는 중앙 통로이고, 그 오른쪽에 상연 예제를 걸어 둔 게시판이 자리 잡고 있다. 중앙 현관 왼쪽은 물건들로 가로막혀 있는데, 이로 보아 왼쪽 출입로는 주 출입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중앙 출입로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왼쪽 출입로 부근에는 물건들이 적체되어 있어 자유로운 출입을 막고 있는 인상이다. 중앙 출입로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인부이거나 종업원으로 여겨지며, 그들은 통상적으로 극장 내부로 이동하는 관객들의 표를 검사하거나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판단된다.

전술한 대로, 중앙 출입구 오른쪽에는 상연 레퍼토리를 소개하는 광고 전단이 붙어 있는 게시판(광고대)이 있다. 게시판은 작은 차양이 있어, 상연 예제를 기록한 전단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나 햇빛을 차단하도록 되어 있고, 이로 인해 관객들이 유의 깊게 상연 예제(공연 콘텐츠)를 살필 수 있도록 주위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그림 4> 1916년 1월 부산좌 전경¹³⁾



<자료 2> 부산좌 3층 관련 기사¹⁴⁾

13) 『부산일보』 1916. 1. 3. 3쪽, ‘부산좌’.

14) 『부산일보』 1916. 4. 16.(조간) 5면, ‘부산좌[釜山座]의 모양 교체 ; 3층을 없애다’.

건물 2층은 테라스가 있고 외부와 맞닿는 발코니가 위치하고 있다. 발코니 좌우로는 창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극장 내부의 객석은 아니고 로비나 통로에 해당한다고 해야 한다. 1915년 8월 부산좌는 2층 아치가 네 개였다. 그만큼 외부와의 소통(교류) 공간이 넓게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1916년 1월 부산좌 풍경(<그림 4>)에서는 2층 아치의 숫자가 줄어든 상태이다. 사진 상으로는 거리를 행진하는 것 발에 살짝 가려 그 정확한 숫자를 식별하기 어렵지만, 적으면 2개 많아 야 3개 정도의 ‘이층 테라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러니까 당초의 4개에서 줄어든 셈인데, 이러한 변화는 1915년 8월에서 1915년 12월 사이에 리모델링이 진행되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1916년 1월 부산좌의 정면 풍경은 맨 아래 정사각형의 블록을 3개 배치하고 그 위에 똑같은 형태로 블록을 쌓은 다음에, 맨 위층(3층)에는 가운데에 블록 하나만 남겨둔 형태이다. 건물의 정면 풍경은 이국적인 정취를 자아내고 있었다. 물론 정면 풍경 뒤편으로는 극장 무대에 해당하는 안쪽 공간이 별도로 자리하고 있었고, 이러한 공간은 객석과 무대를 연결하는 거대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었다.

한편, 부산좌는 기본적으로 3층 건물이었다. 위의 사진에서도 지상층(1층)과 그 위의 2층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고, 중앙 건물 위쪽으로 전체 대지의 1/3 가량의 3층 건물이 축조되어 있었다. 그런데 1916년 부산좌는 이 3층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기로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약간 의외이지만, 불필요하게 3층이 존속하고 있었다면 과감하게 손질할 필요도 있었던 것 같다.

부산좌의 풍경은 당시 발행된 그림엽서 속에도 그 자취를 남기고 있다. 아래 우측 사진(<그림 6>)에서 부산좌의 2층 테라스는 네 개이고, 1층 출입구는 두 개로 포착된다. 물론 1층 주 출입구 오른쪽으로 상연 예제 게시판이 위치하고 있다.



<그림 5> 좌) 정면 좌측에서 바라 본 부산좌¹⁵⁾



<그림 6> 우) 우측에서 바라 본 부산좌와 부속 건물¹⁶⁾

이 사진에서 새삼 주목되는 것은 부산좌 우편 목조 건물이다. 2층의 이 건물은 목조 건물로 식당이나 술집 혹은 찻집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목조 건물의 용도는 인천 가무기좌 설비(안)에서 단서를 구할 수 있다. 이희환이 발굴하여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가무기좌는 ‘본가(本家)’, ‘다옥(茶屋)’, ‘도구창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¹⁷⁾ 이 중 ‘다옥’은 특히 주목되는데, 실제로 가무기좌와 같은 주소(행정구역상)에 있던 6동의 건물 중 하나가 다옥이었다.¹⁸⁾ 부산좌의 정면 우측에 설비된 2층 건물은 다옥(식당)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 건물의 외부는 해당 상가와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좌측 사진(<그림 5>)과 비교하면, 극장 본채와 간이(부속) 건물이 이질적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좌측 사진은 부산좌를 좌편에서 바라본 사진으로, 간이건물 반대편

15) 『부산일보』 2009. 6. 30., ‘부산좌’

16) 『부산좌』<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Index?local=busan> (검색일: 2017.6.17)

17) 이희환, 『인천 근대연극사 연구』, 『인천학연구』 5, 2006, 12~13쪽.

18) 김남석, 『조선의 개항장에 건립된 인천 가무기좌에 관한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46, 2016, 9~10쪽.

에 서 있는 목책과 대형 깃발을 인상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근대극 도입기 혹은 일제 강점기 극장들은 극장 주변에 대형 깃발을 내걸어 영업 중임을 알리고 상연 예제를 고지하는 수단으로 삼곤 했다.

초저녁 남성사 앞이다. 극장 정면에는 가로 된 커다란 틀의 간판이 붙었는데, 바탕은 백로지에 굵은 모필로 ‘혁신단 창립 동행’이라 썼고, 문턱에는 그 날 상연할 예제(藝題)를 백로지 작은 간판에 다음과 같이 써어 있었다.

광고		
혁신단 일행		來演
藝題 <불효친발>		七幕
		밤—八時開演

그리고 좁은 골목 안에는 기름한 ‘혁신단 일행’이란 깃발이 날렸고, 손님을 부르는 날라리 소리가 큰 행 길 밖으로 새어나갔다.

<자료 3> 1910년대 남성사의 공연 선전 풍경¹⁹⁾(밑줄:인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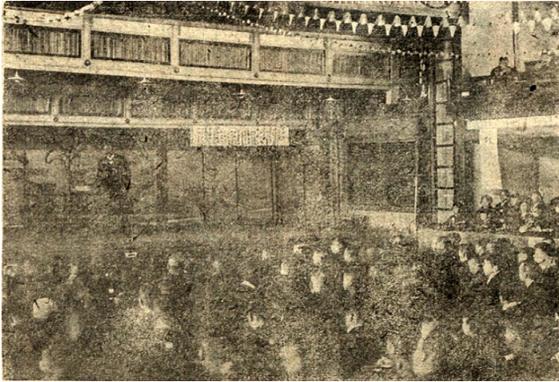
안중화가 묘사한 남성사 앞 풍경은, 우측 부산좌 사진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비록 광고대가 거리를 가득 메운 상태는 아니지만, 공연 극단의 이름을 적은 깃발이 날리고 있었고, 상연 예제가 적힌 종이(‘백로지’)가 극장 입구에 붙어 있는 풍경이 그러하다. 극장은 관객들을 위한 광고와 편의 시설을 베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효 관객을 창출하기 위한 각종 시설을 구축하고 있었다고 해야 한다.²⁰⁾

다음으로, 부산좌의 내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말한 무

19) 안중화, 『신극사 이야기』, 진문관, 1955, 92~93쪽.

20) 김남석, 『기억된 미래』, 보고사, 2005.

대와 객석을 아우르는 1-2층 건물 안쪽은, 건물 외부와 달리 일종의 정사각형 모습을 취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관련 도면도가 발굴되지 않은 상태인지라, 다음 소개(발굴) 자료는 이전까지 말만 무성하던 부산좌 내부를 그나마 관찰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그림 7> 부산좌의 내부 전경²¹⁾

부산좌는 전형적인 가부키 극장 양식으로 축조되었다. 비록 위의 사진은 공연 사진이 아니라 ‘芥川(개천)’ 시장이 부산좌에서 연설하는 광경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눈으로 확인되듯 본연의 극장 공간만큼은 연설보다는 공연에 더욱 적합한 구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진 상으로 정면에는 무대가 위치하고 있고, 우측(상수 방향)으로는 악사석이 마련되어 있으며, 무대와 악사 석 사이에는 화도(花道)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사진 전면으로는 객석이 마련되어 있어, 관객들이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 뒷모습이 포착되어 있다.

악사석의 위치와 규모는 주목되는 사안이다. 1920~30년대 조선(인)

21) 『부산일보』 1915. 4. 3.(조간) 9쪽, ‘본사 이전 당시의 축하회(부산좌); 개천[芥川] 시장의 연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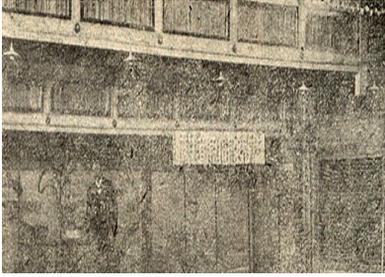
의 극장에도 악사석이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당시 공연 환경에서 악사석은 중요한 공간이자 구조물이었다.²²⁾ 영화상설관에서는 악사석의 위치가 더욱 중요했다. 비록 부산좌가 영화상설관을 전면 표방한 극장은 아니었다할지라도, 관련 극장들의 중요도와 선호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중요성을 짐작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특히 부산좌의 악사석은 충분한 규모와 시설을 동반하고 있다.

무대는 넓은 편이고, 천장까지의 높이도 상당했다. 더구나 무대 전면으로 복층의 구조물이 있어, 웅장한 인상을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복층의 구조물 뒤편으로는 조명 라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라인을 따라 첨단 조명이 달려 있었다. 무대는 전체적으로 박스 세트(box set)의 형태를 따르고 있지만, 세부 치장은 일본식 혹은 동양적인 인상을 강하게 자아내고 있었다. 객석은 2층 이상으로,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는 3층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관련 기사에 따르면 1916년에 부산좌 3층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3층 구조가 객석 관람에는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않는 형태였다고는 할 수 있겠다. 실제로 일제 강점기 극장 중에 3층 객석까지 보유한 극장도 간헐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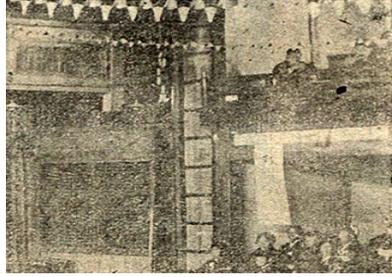
다음은, 부산좌의 풍경 중에서 주요 부분을 확대 발췌한 사진이다. 좌측 확대 사진은 무대와, 무대 뒤 그림(세트), 그리고 무대 위 현판, 현판 위에 줄지은 조명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무대는 좌우 폭이 크고 깊이(심도)가 상대적으로 협소한 형태이다. 무대에 오른 시장의 인상으로 볼 때, 가로 길이는 매우 길고, 세로(깊이) 폭은 상대적으로 협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비율과는 무관하게, 부산좌가 전체적으

22) 상설극장마다 악사석의 위치는 다른 것으로 조사 분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선극장은 악사석을 2층에 두었고, 단성사는 무대 밑에 악사석을 배치했다(조순자, 『무성 영화시대 상설극장 관현악단과 지방순업팀 악사들의 조직 구성 및 역할』, 『음악과민족』 46, 2013, 113쪽).

로는 상당한 크기의 대극장이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림 8> 좌) 부산좌의 무대
구조와 조명 라인



<그림 9> 우) 부산좌 상수
방향 시설 확대

사진 상으로는 무대의 심도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물론 무대 뒤로 보이는 세트(장치)가 무대 깊이를 제약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여지를 함부로 배제할 수는 없다. 본래 무대는 이 보다 깊은 심도를 지니고 있는데, 연설(자)을 위해서 공간을 줄이고 심도를 제약한 상태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대 위로는 현판 혹은 플랜카드가 걸려 있고, 그 위에는 글씨가 적혀 있다. 현재 사진 상태로는 그 글자가 보이지 않지만, 정황 상 연사 이름이나 강연 제목(요지)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 위로 조명기가 보인다. 조명은 현대의 그것처럼 복잡한 조명 라인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렬로 배열된 가스등 형태의 조명이 아래를 향해 빛을 모으도록 배치된 점이 특색이다. 전체 사진에는 이러한 전등이 5개로 포착되는데, 실제 부산좌의 무대 전등은 6개였다.²³⁾ 조명(기)은 무대 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어, 빛의 집중이나 편중으로 인해 전반적인 조도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우측 확대 사진에서 오른쪽 2층을 보자. 관객들이 느긋하고 편안하게

23) 『조선실업』 26, 1907년 8월호 참조.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다. 넓은 객석에 단 2명만 앉아 있고, 그 사이의 간격이 상당하다. 더구나 두 사람은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다. 2층 객석 밑으로는 악사석이 마련되어 있다. 일본의 전통 연극(가부키)에서 음악 반주는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연주를 위해 악사들이 주요하게 무대 위에 등장하는 사례가 흔하다. 일본식으로 좌정하고 객석과 무대를 바라보는 모습에 일사 분란한 절도가 묻어나오고 있다.

악사석 옆에는 본 무대와 떨어져 작은 방이 마련되어 있다. 마치 작은 창고처럼 마련된 방은 방문이 닫혀 있는 인상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용도를 겸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폐쇄된 인상이지만, 무대의 일부로 언제든지 개방될 수 있도록 설계 축조한 흔적이 역력하다. 무대 위로는 나무 장식과 끈(축하)이 걸려 있다. 사진이 포착한 시점으로 인해 장식이 이루어졌겠지만, 전반적인 극장 구조와 이미지는 서양의 그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해야 한다.



<그림 10> 부산좌 상수(편) 객석 광경²⁴⁾

24) 『부산일보』 1915. 8. 9. 3면, ‘독정 예창기의 부산좌 총견[總見](단체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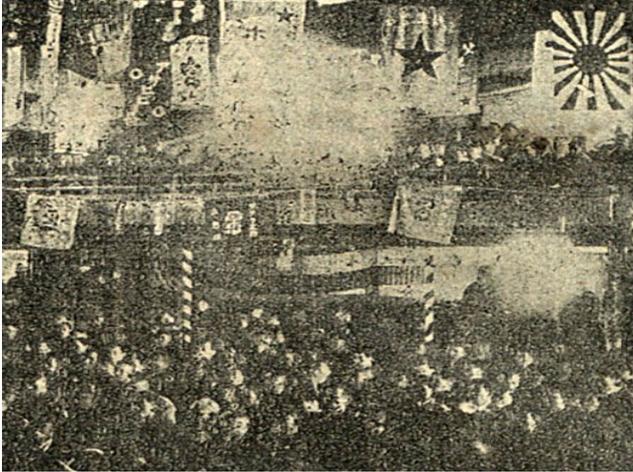
이제 시선을 돌려, 다른 발굴 자료를 살펴보자. 위 사진(<그림 10>)은 무대 하수(객석에서 바라본 무대 좌측)에서 상수 방향(객석에서 바라본 무대 우측) 객석(후면 모퉁이)을 바라본 정경이다. 당시 공연에는 기생들의 단체 관람이 이루어져, 객석 대부분을 기생들이 채우고 있다.

위 사진은 1915년 부산좌를 단체 관람한 기생들의 모습을 포착한 사진이다. 객석에는 기생들이 앉아 있는데(부산좌의 객석 구조는 방석을 깔고 앉는 방식), 좌우로 앉은 기생들의 숫자는 약 20여 명이다. 그리고 이러한 좌우 열이 15~20 줄로 배치되어 있다. 그러니 위 사진에만 1층 객석에 300~400명 정도의 인원이 수용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위 사진에 의하면 2층에 객석이 존재했고, 비록 포착된 2층 객석이 여유로운 좌석이라고 할지라도, 양 옆으로 100~200석 규모의 관객은 충분히 수용할 정도로 여겨진다. 객석 뒤편이 이보다 훨씬 조밀하다고 할 때, 적어도 1층 정도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예상된다.

홍영철은 『조선실업』 자료를 바탕으로, 객석 무대 정면이 99석, 좌우 측이 225석으로 총 입장 가능한 객석이 1540석에 이른다고 기술하고 있다.²⁵⁾ 이러한 추정은 얼추 비슷할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위의 사진이 증거 하는 객석(주로 1층) 규모와 아래 사진이 보여주는 2층 객석의 규모를 감안하면, 부산좌가 1000석 이상의 대극장 규모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를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부산좌의 객석을 포착한 사진을 살펴보자. 부산좌의 극장 입구는 무대 반대편에 있었고, 입구 위쪽으로는 객석 2층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극장 객석에는 만국기를 비롯하여 각종 깃발이 걸려 있었고, 아래로 내려 뜨러 공간의 안온한 느낌을 강조 하려고 했다.

25) 홍영철, 앞의 책, 2014, 80~81쪽.



<그림 11> 부산좌에서 개최된 행사(광경)²⁶⁾

위 사진은 부산좌 2층 객석을 보여준다. 당초 예상보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높이 역시 상당하여 적지 않은 관객들이 2층에서 관극을 했을 가능성을 더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천정이 높은 편이고, 천정에 깃발(국기)을 게양할 수 있을 정도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부산좌는 전체적으로 안온한 분위기와 인상을 창출하는 극장이었다. 무대 전면은 고풍스럽고 정교한 편이었으며, 화도와 악사석은 가지런하고 아늑하게 축조되어 있었다. 객석 역시 상당한 크기를 지니면서도, 무대 가까운 객석은 특별석으로, 출입구 방향 객석은 상당한 숫자의 객석으로 분리되어 배치되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취향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고, 객석에 맞는 수입(입장료)을 책정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마련될 수 있었다.

26) 『부산일보』 1917. 4. 5. 7면, ‘환희의 소리로 가득 찬 본사 10주년 축하회 ; 아름답게 그린 부산좌의 장식, 흥미를 돋구는 여흥 여러 가지.’

Ⅲ. 지도로 보는 부산좌(1920~30년대)

부산좌는 부산부 부평정(釜山府 富平町, 현 부평동 일대)에 위치하고 있었다.²⁷⁾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평정 2정목에 위치하고 있었다. 아래 지도는 당시 상황을 비교해서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림 12> 대정 8년(1919년)
부산부 지도(1/10000)



<그림 13> 네이버 지도
(2017년 부평동)²⁸⁾

1919년 부산부의 지도에는 해안가와 수직으로 방향으로 부평정이 펼쳐져 있다(해안가는 ‘남빈정’이다). 용두산 공원 방향에서 차례로 1정목, 2정목, 3정목이 구획되어 있고, 그 중 부평정 2정목 중간에 부산좌가 위치하고 있다. 참고로 부산정 1정목에는 서본원사가 있고, 2정목 북쪽에는 ‘일한시장이 있으며, 2정목과 만나는 남빈정 3정목에는 대흑좌(大黑座)가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과거의 행정 구역과 도시 구획 상황은 2010년대에 거의 그

27) 『동아일보』 1923. 3. 23. 3쪽, ‘부산시에 대화재(大火災)’.

28) <http://map.naver.com/>(검색일: 2017. 6. 17.)

대로 남아 있다. 부평정을 바둑판처럼 구획했던 도로와 건물 배치는 지금도 원형 그대로 남아 있으며, 부평정 옆 서정(西町)의 오밀조밀한 골목과 도로도 과거의 형해대로 유지되고 있다. 부평정 3정목과 토성정을 나누며 사선으로 흘러내리던 개천은 복개되어 기간 도로로 쓰이고 있고, 지금도 부평동과 토성동을 나누는 기획 기준으로 설정되고 있다.

다만 과거의 해안선은 바다로 더 물러나고(해안 매립), 과거 남빈정이남으로 자갈치시장과 종합시장 그리고 상가를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배치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부평동 일대가 중요한 상업 지구임을 증명한다고 하겠다.

부평정에 들어선 극장이 부산좌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일단 부평정이라는 지구에 부산좌라는 극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이점을 설명한다. 위로는 일한시장이 존재하고 있었고, 우측으로는 서본원사라는 종교 시설과 실습여학교라는 교육 시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실습여학교는 1915년 4월 17일 연예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그 개최 장소로 부산좌를 선택한 바 있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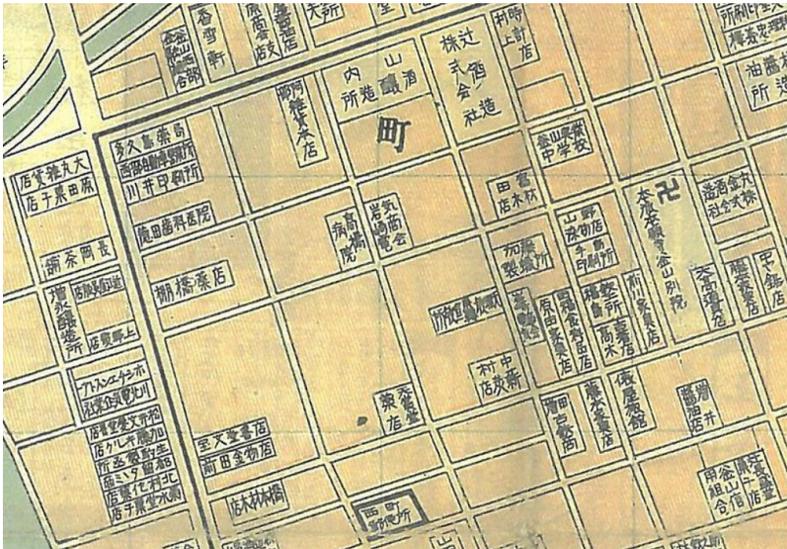
또한 남빈정 방향으로는 부산의 항만이나 철도와 연결되는 해안가 도로가 놓여 있었고, 부평정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그 규모가 상당했다. 이른바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에 부평정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러한 부평정의 중심에 부산좌가 설립되어 있었던 것이다.

2000년대의 부산 부평동도 기본적으로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여기에 부산 BIFF거리가 형성된 점은 과거 극장가 형성과 무관하지 않다. 근대 도입기 혹은 일제 강점기 일본 극장의 밀집과 범람은 자연스럽게 이 인근에 극장가를 형성했고, 해방 이후에도 이러한 극장가의 맥락이 이어졌으며, 특히 6.25전쟁과 함께 이러한 극장가의 위상과 기능

29) 『부산일보』, 1915. 4. 15.(조간) 7쪽, ‘실습여학교의 연예회, 17일 밤 부산좌에서’. 『부산일보』 1915. 4. 16.(조간) 7쪽, ‘실습여학교의 연예회 번조, 17일 밤 부산좌에서’.

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상황이 BIFF의 초창기 개최 장소로 남포동/부평동/자갈치시장 인근을 주목하도록 만든 셈이다.

소화 4~5년, 즉 1929~1930년에 간행된 관련 지도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1923년까지 부산좌가 위치했던 자리(터)와 관련이 깊다.



<그림 14> 소화 4~5년(1929~1930년) 간행 부평정 일대 지도

위의 지도에서 부산좌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역사적 시점에서 볼 때, 필연적인 결과이다. 왜냐하면 1923년 화재 이후 과거 부산좌의 자리는 건물이 사라진 폐허로 남았다가, 부전재목점(副田材木店)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영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위 지도에서 살펴야 할 초점은 부평정의 변화한 광경 속에 남아 있는 부산좌의

자취이다. 부산좌는 1929년 무렵 부평정에는 실재하지 않는 극장이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부산좌 재건축 논의는 매우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었다.³⁰⁾ 비록 1929~30년에 간행되었던 지도에서 그 자취가 목재점으로 표기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도, 당시 거주자들과 지역민들의 인식 속에서 부산좌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해야 한다.

그만큼 부산좌의 터는 1910~20년대 부산좌의 기억과 역사가 깃든 곳이었기에 부산 지역민들은 이곳을 극장으로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여론은 계속해서 극장 재건축과 재운영에 대한 동의로 기울어지고 있었으며, 결국에는 부산좌의 재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IV. 부산좌의 설립자와 운영자

부산 최초의 극장 행좌를 건립 운영한 迫間房太郎(하사마 후사타로)와 함께 부산 지역 극장을 장악했던 또 한 명의 인물이 大池忠助(오이케 타다스케, 1856~1930년)였다. 그는 1875년 2월 부산으로 건너와서 사업가로 변신했고, 해산물 무역을 비롯하여 여관업, 미곡, 잡화(직수입), 정미업 등에 주력하였다. 그가 운영한 극장(들)은 부산좌(1907~1923년)와 유락관(1921~1945년)으로, 이후 유락관의 경영은 오이케 겐지로 이 전되었다. 오이케 겐지는 중앙극장의 운영에도 관여한 바 있다.

大池忠助는 일본에서 이주한 1세대 사업가에 속하는데, 특히 迫間房太郎 그리고 정치국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³¹⁾ 부산 상권의

30) 『부산일보』 1929. 3. 20.(석간) 4쪽, ‘일본취미의 이상적 대극장 ; 구부산좌 터에 9만 원으로’.

31) 大池忠助와 迫間房太郎 그리고 정치국까지 포함하는 해항 도시의 상인들에 대해서

중심으로 부산상업은행을 들 수 있는데, 이 은행에 대한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상인이 迫間房太郎였고(5489주), 大池忠助는 세 번째로 많은 주식을 보유한 인물이었다(2200주).³²⁾ 또한 두 사람은 경남은행에서도 중역으로 참여한 바 있는, 정재계의 동지이자 라이벌이었다.³³⁾ 한편 大池忠助는 조선우선에서도 중역으로 재직하여,³⁴⁾ 정치국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迫間房太郎나 大池忠助는 이미 1900년대에 기선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한 기록도 남아 있다.³⁵⁾

이중에서 迫間房太郎와 大池忠助의 공조에 대해서는, 폭넓게 관련 범위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두 사람은 경남은행, 부산상업은행 이외에도, 부산수산(株), 조선와사전기(株)를 비롯하여 부산공동창고(株)³⁶⁾, 부산일보사(株)³⁷⁾, 부산증권(株)³⁸⁾ 등의 회사에서 주주와 중역 그리고 경영자로서 관련을 맺어왔다. 이러한 공조 체제는 유달리 견고했고, 그래서 두 사람은 부산을 대표하는 사업가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다.³⁹⁾ 부산 대표 사업가의 위상을 지녔던 大池忠助는 극장업에서도 迫間房太郎나 정치국과의 연관성을 맺고 있었다. 迫間房太郎는 부산 최초의 극장으로 흔히 일컬어지는 행좌를 설립 운영했고, 정치국은 인천으로 사업 본거지를 옮긴 후에 협률사(애관의 전신)를 설립한 바 있다. 大池忠助는 山本純一(야마모토 준이치)이나 中村俊松(나카무라 토시마

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했다(김남석, 『극장을 짓는 항구의 상인들—조선의 항구 도시에서 극장을 건립·운영한 상인들의 내력과 상호 관련성을 중심으로』, 『영남학』 29, 2016, 377~402쪽).

32) 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濟時報社, 1925.

33) 中村資良, 위의 책.

34) 『매일신보』 1912. 3. 3. 2쪽, ‘조우(朝郵) 창립총회’.

35) 『대한매일신보』 1907. 10. 15. 2쪽, ‘기선회사설립’.

36) 中村資良, 앞의 책.

37) 中村資良, 위의 책.

38) 中村資良, 위의 책.

39) 『매일신보』 1917. 1. 24. 2쪽, ‘지방거금(地方釀金) 발기자’. 『매일신보』 1913. 2. 13. 2쪽, ‘실업가 초대회’.

츠), 五島甚吉(고지마 진기치) 등과 함께 부산좌에 투자하여 경영한 사업가였다.⁴⁰⁾

山本純一은 1887년 조선으로 건너와 부친이 부산에서 육성한 사업(가업)을 이어 이를 더욱 확장하는 역할을 한 일본 상인이었다.⁴¹⁾ 그는 迫間房太郎와 함께 조선상업회의소연합회 부회두를 역임한 인물이며,⁴²⁾ 迫間房太郎가 대표로 있었던 부산공동창고(주)의 전무이사를 맡은 바 있다.⁴³⁾

부산상업회의소 평의원이었던 中村俊松은⁴⁴⁾ 부산수산(주), 부산공동창고(주), 부산정미소(주), 조선수산수출(株) 등에서 주로 감사직을 맡아 수행한 바 있다.⁴⁵⁾

五島甚吉은 1880년 당시 나이 19세로 조선으로 건너와 부산을 기반으로 한 평생을 무역업에 전념했다. 1896년에는 부산거류지민회 의원, 상업회의소 의원 등을 역임했고, 1906년에는 부산미곡거래소(곡물시장)를 창립했으며, 1908년에는 ‘오도(五島)합명회사’를 조직한 바 있다.⁴⁶⁾ 1915년 경 부산상업회의소 회두에 올랐고,⁴⁷⁾ 1918년 경에는 부산부협의회원이 되었다.⁴⁸⁾

이처럼 大池忠助와 함께 부산좌에 투자한 이들은 모두 부산 상재계의 거상이었고, 오래된 유지였으며, 영향력을 갖춘 지역 인사였다. 이들은 투자 상의 안정성을 확정한 상태에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부

40) 홍영철, 앞의 책, 80~81쪽.

41) 『조선공로자』,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검색일: 2017. 6. 17)

42) 『부산일보』 1915. 9. 11.(조간) 2쪽, ‘전 조선 상업회의소연합회 위원’.

43) 中村資良, 앞의 책.

44) 『부산일보』 1915. 5. 26.(조간) 1쪽, ‘회의소 의원의 면영(17) 부산상업회의소평의원 중촌준송[中村俊松] 군’.

45) 中村資良, 앞의 책.

46) 『조선공로자』,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검색일: 2017. 6. 17)

47) 『부산일보』 1915. 10. 10.(조간) 2쪽, 「사람의 인상[印象]; 부산부협의회원 五島甚吉 군’.

48) 『부산일보』 1918. 1. 1.(조간) 4쪽, ‘부산부협의회원 五島甚吉 씨의 새해 인사말’

수적 목적까지 포함하여, 부산좌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산좌의 사업 운영 기반은 비단 관객 혹은 일본인들만의 인지도로만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 지분을 나누고 있는 이들의 면면이 부산의 명사와 유지 그리고 상인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막강한 대외 영향력과 함께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부산좌를 건축한 후루카와(古川)도 주목해서 살펴야 할 인물이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후루카와가 부산좌를 설계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후루카와가 오사카의 극장을 견학하고 부산좌를 건축했다는 후문이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⁴⁹⁾

마지막으로 1915년 기점에서 흥행주로 등장한 千歲定吉에 대해서 살펴보자. 千歲定吉은 흥행주로 등장했지만, 본래 직업은 토목 관련 사업으로 그가 1930년대에 운영했던 ‘천세조(千歲組, 합자회사)’는 이러한 특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회사였다.⁵⁰⁾



<그림 15> 千歲定吉의 사진⁵¹⁾



<그림 16> 大池忠助의 사진⁵²⁾



<그림 17> 五島甚吉의 사진⁵³⁾

49) 홍영철, 앞의 책, 79쪽.

50) 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濟時報社, 1921~1941.

천세조 본점 주소는 부산부 부평정 1정목 29(-2)로, 부산좌의 주소와 매우 근접해 있었다. 천세조 회사의 설립/운영 목적은 “토목건축 청부업 그에 관련하는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었는데, 위에서 살펴본 부평정 일대 지도에서 토목 관련 업체들은 상당한 숫자를 보이고 있어, 千歲定吉의 사업이 그 일대에서는 보편적인 사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38년 千歲定吉 관련 기사를 보면, 그가 부평정 일대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던 인물이었다고, 의용소방조로 활동하다가 부평정 일대에 정착하게 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각 지역에서 소방조와 지역 극장이 면밀하게 연결된 경우는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해안을 따라 부산과 비교적 면밀한 교류를 유지하고 있던 감포에서는 소방조가 영화관과 직간접적인 협력 하에 계몽 영화 상영에 참여한 흔적이 남아 있다.⁵⁴⁾ 해항(항구) 도시에서 소방조는 도시 내 공간이나 시설물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데, 이러한 관련성은 극장 경영으로도 확인되는 셈이다.

千歲定吉은 부평정 일대에서 사업 기반을 쌓았고, 그 중에서도 1910년대 부산좌는 극장업의 변모라는 측면에서 주요한 개인적 성과에 해당한다. 물론 부산좌 역시 이러한 조력을 받아, 한층 다양하고 변모된 극장 경영(외관) 단계로 들어설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적지 않은 부산의 유지들이 부산좌의 창립과 경영에 참여했기 때문에, 부산좌는 비단 일개 개인의 극장으로 치부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1923년 화재 이후 복원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으며, 결국 1930년에 大池忠助는 비록 부산좌는 아니지만, 새로운 극장을 창립할 수 있었

51) 『부산일보』 1938. 10. 8.(석간) 2쪽, ‘千歲定吉 씨 근황’.

52) 『부산일보』 1918. 1. 1.(조간) 4쪽, ‘大池忠助의 사진’.

53) 『부산일보』 1918. 1. 1.(조간) 4쪽, ‘五島甚吉의 사진’.

54) 『부산일보』, 1929. 8. 14. 9쪽, ‘방화[防火] 선전용 영화(감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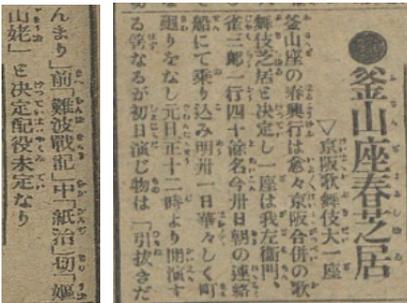
다.55) 극장 위치와 명칭은 달라졌고, 투자자 역시 변경되었지만, 이 극장은 부산좌의 먼 후신쯤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V. 부산좌의 상연 콘텐츠와 극장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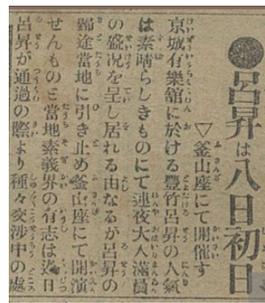
1. 연극 공연장으로서 부산좌

부산좌는 기본적으로 연극 공연장이었다. 그러한 기록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부산좌에서 공연되는 작품은 기본적으로는 신파극이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장르 혹은 작품들이 즐겨 내방하곤 했다. 1915년 大江義雄의 소설극(小雪劇)이 대표적인 신파극으로, 1915년에 이미 조선 방문 공연이 활성화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56)

다른 예로, 1916년~1918년 공연 기록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모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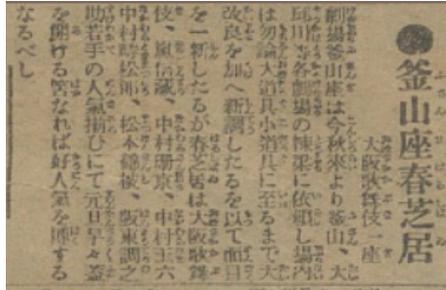
<자료 4> 부산좌에서 연극 공연(1916)⁵⁷⁾



<자료 5> 부산좌에서 외부 극단 공연(1916)⁵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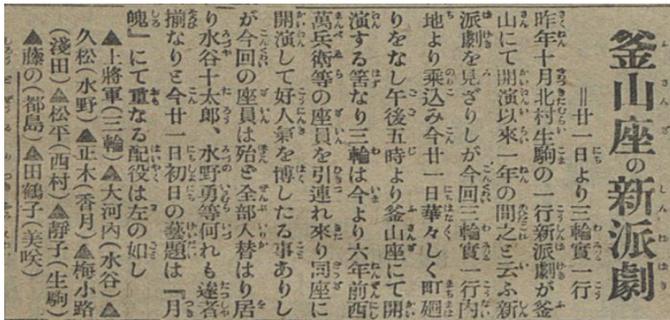
55) 『매일신보』 1930. 3. 1. 7쪽, ‘중앙극장(中央劇場) 신축 낙성(新築落成) 근일 개관할 터.’

56) 『부산일보』 1915. 5. 6. 4쪽, ‘『부산좌의 소설극(小雪劇)』.



<자료 6> 부산좌에서 연극 공연(1918)⁵⁹⁾

1916년 부산좌에는 경관(京阪) 가무기대좌(歌舞伎大座)가 내방하였다. 이때(1916~1917년) 경관 가무기좌는 ‘세밀’과 ‘원단’을 이용하여 조선 방문 공연을 추진한 것이다. 1916년 10월에도 일본 극단의 방문 공연이 이어졌다.⁶⁰⁾ 1918년 부산좌에는 대판(大阪) 가무기좌(歌舞伎座)가 내방하여 공연을 펼쳤다. 원단을 맞이하여 공연을 시행하는 기회였고, 이로 인해 부산좌는 특별한 흥행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었다.



<자료 7> 부산좌의 대표적인 신파극 공연 사례⁶¹⁾

57) 『부산일보』 1916. 12. 30. 3쪽, ‘『부산좌[釜山座] 춘지거[春芝居]’.
 58) 『부산일보』 1916. 10. 4. 7쪽, ‘여승[呂昇]은 8일 초일; 부산좌[釜山座]에서 개좌’.
 59) 『부산일보』 1918. 12. 29. 3쪽, ‘부산좌[釜山座]의 춘지거[春芝居]’.
 60) ‘여승[呂昇]은 8일 초일; 부산좌[釜山座]에서 개좌’, 『부산일보』, 1916년 10월 4일, 7쪽.

부산좌의 레퍼토리 중에서도, 신파극 관련 레퍼토리는 부산좌의 대표적인 레퍼토리로 간주해도 무방한 인기 장르에 해당했다.

위 기사는 1915년 11월 경 일본 신파극단의 내방 공연을 소개하고 있다. 더욱 주목되는 사안은 1915년 이전에도 적지 않은 신파극이 부산좌에서 방문 공연을 시행했다는 점이며, 이러한 풍조가 단순히 우연적인 요인에 의해 발발한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부산좌는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위한 방문 공연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도시였고, 조선의 다른 도시로 내방하는 루트의 시작 지점이었기에 그 어느 도시보다도 일본극단의 순회 공연지로 각광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신파극은 비록 일본의 전통 연극은 아니었지만, 근대적 연극의 특성을 지닌 연극 장르였기 때문에, 일본을 떠나 외지에서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는 선호하는 관극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 당시 신문들은 이러한 부산 거주 일본인들의 애환과 기호를 알고 있었기에, 신파극단의 내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또 이러한 극단의 흥행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행보를 보이기도 한다. 해방 전 『부산일보』는 그러한 대표적인 언론이었으며, 동시에 연극(비록 일본 신파극이라고 할지라도)의 충실한 후원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다. 이러한 신파극의 내방과 『부산일보』의 역할은 1910년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비록 1920년대에도 이러한 내방 공연이 활발하지 않은 편은 아니었다고 해도, 점차 그 성세와 인기는 예전에 비해 위축된 인상이었다.

다만 부산좌에서 신파극 공연은 주요한 레퍼토리로 정착되었고, 횡수 상으로도 다른 공연에 비해 다수였던 것을 분명하다. 이밖에도 신파극의 범주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작품들이 다수 공연된 바 있다. ‘자연극’은 대표적이라고 하겠다.⁶²⁾

61) 『부산일보』, 1915. 11. 21.(조간) 5쪽, ‘부산좌의 신파극’.

62) 『부산일보』 앞의 기사(1915. 11. 23.).

한편, 부산좌의 외부 공연 기록 중에서도 예술좌의 공연 사례는 주목된다. 일단 예술좌의 부산좌 공연이 감지되는 시점은 1917년이다.⁶³⁾ 1917년 7월 부산좌에서 예술좌(藝術座) 공연이 시행되었다. 이 시점은 조선에서 지역 극장의 건립이 논의될 시점이었는데, 부산좌에서는 이미 일본의 극단을 초청하여 과감한 공연을 기획할 정도로 극장 문화에 대한 수요를 활용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층 주목해야 할 점은 역사적으로 더욱 주목받는 예술좌의 공연은 이미 2년 전에 시행되었다는 점이다.⁶⁴⁾

일본 극단 예술좌가 조선에서 최초 공연한 시점은 1915년이다(현재로서는 1915년 예술좌의 부산 공연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1915년 11월 5일 예술좌는 시모노세키를 출발하여 11월 7일에 부산에 도착했고,⁶⁵⁾ 부산에서 육로로 이동하여 1915년 11월 9일 경성 ‘사쿠라좌’에서 조선 공연을 개연하였으며,⁶⁶⁾ 11월 17일까지 경성에 머물면서 사쿠라좌 외에도 수좌(壽座) 등에서 공연하였다.⁶⁷⁾

예술좌의 공연은 여러 모로 조선 극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가령 이기세의 유일단이 島川抱月 예술좌의 영향을 받아 톨스토이의 <부활>을 상연 예제로 삼기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⁶⁸⁾ 이 작품은 유일단뿐만 아니라 예성좌에서도 공연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안종화는 유일단이 ‘번역극 수입의 시조’였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의 옳고 그름을⁶⁹⁾ 차치하고라도 유일단의 이러한 시도는

63) 『부산일보』 1917. 7. 5.(조간) 4쪽, ‘예술좌[藝術座]의 초일, 8일 부산좌에서 초일’.

『부산일보』 1917. 7. 8.(조간) 4쪽, ‘예술좌의 공연’.

64) 1915년 부산에서 예술좌가 공연한 것은 확인되지만, 극장이 어디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65) 『부산일보』 1915. 11. 7.-9. 참조.

66) 『경성일보』 1915. 11. 6. 3쪽. 『경성일보』 1915. 11. 8. 3쪽, ‘盛なる芸術座一行の乗込’.

67) 홍선영, 『예술좌의 만선순업과 그 문화적 파장』, 『한림일본학』 15, 2009, 176쪽.

68) 『동아일보』 1939. 3. 24. 5쪽, ‘국적 불명의 부활’(안종화).

69) 안종화가 유일단에서 <부활>을 공연했다는 기록을 남기고는 있으나, 이 사실에 대해

초기 신과극 정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술좌가 일본에서 <부활>(톨스토이 원작, 島川抱月 각색)을 공연한 시점 역시 1914년 3월(제국극장)이었고,⁷⁰⁾ 조선에서 <부활>을 공연한 시점은 1915년 11월 9일~11일이었다.⁷¹⁾ 1917년 부산좌 공연에서도 <부활>이 공연되었다. 우측 예술좌의 공연 레퍼토리를 보면, 島川抱月 각색 <부활>의 공연이 주요 상연 예제로 설정되어 있다. 이 <부활>은 조선연극사와 당대 콘텐츠 제작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는 공연 텍스트로 발견 육성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동시에, 부산좌에서는 다양한 일본 (전통) 연극 양식이 공연되기도 했다. 앞에서 말한 신과극이나 가부키⁷²⁾ 이외에도, 낭화절(浪花節, 나니와부시),⁷³⁾ 교육극(태양극단),⁷⁴⁾ 광언(狂言),⁷⁵⁾ 조루리(淨瑠璃),⁷⁶⁾ 기예(奇術),⁷⁷⁾ 강담(事),⁷⁸⁾ 문악(文樂, 분라쿠),⁷⁹⁾ 마술과 기예⁸⁰⁾ 등이 공연

서는 다른 자료로 입증되지 못한 상태이다. 오히려 1916년 4월 23일 『매일신보』에는 같은 날에 예술좌가 조선극단으로는 최초로 <카쥬샤>를 공연했다고 기사화했다. 따라서 안중화가 주장하는 유일단 <부활> 공연설은 착오일 가능성이 있다(『매일신보』 1916. 4. 23. 3쪽, ‘예술좌의 근대극, 유명한 카쥬샤’).

70) 홍선영, 앞의 논문, 172~173쪽.

71) 『경성일보』 1915. 11. 16. 3쪽, ‘기사제목’.

72) 『부산일보』 1915. 6. 25. 5쪽, ‘부산좌의 가부키[歌舞伎], 25일 오후 6시 첫날’.

73) 『부산일보』 1915. 6. 16. 5쪽, ‘소년낭화절[少年浪花節] 오다, 17일부터 부산좌에서’. 『부산일보』 1916. 2. 9.(조간) 5쪽, ‘부산좌의 낭극[浪劇]’. 『부산일보』 1916. 2. 9.(조간) 5쪽, ‘부산좌의 낭극[浪劇]’. 『부산일보』 1918. 9. 12.(석간) 2쪽, ‘경산애호[京山愛虎] 개연, 11일부터 부산좌에서’.

74) 『부산일보』 1915. 8. 2. 3쪽, ‘대교[大橋] 교육극단, 6일부터 부산좌에서’.

75) 『부산일보』 1915. 8. 9. 3쪽, ‘부산좌 4일째 광언[狂言]’.

76) 『부산일보』 1915. 8. 22. 5쪽, ‘부산좌의 월로태부[越路太夫]’. 『부산일보』 1915. 8. 30. 3쪽, ‘환영 정유리[淨琉璃] 어물[語物]은 <합방>’. 『부산일보』 1916. 12. 1. 5쪽, ‘부산좌에서 정류리대회’.

77) 『부산일보』 1916. 9. 22.(조간) 7쪽, ‘부산좌의 천승[天勝]’.

78) 『부산일보』 1917. 4. 28. 7쪽, ‘강담사[講談師] 신전박도[神田伯道]; 오는 28일 부산좌에서’.

79) 『부산일보』 1917. 10. 9. 5쪽, ‘[靱], 인[靱] 양태부[兩太夫] 본월 중순 부산좌에 오다’. 『부산일보』 1917. 10. 27. 4쪽, ‘고인[古靱]의 소진[沼津]; 대관 문악[文樂] 정유

되었다. 또한 그 중에서 부산좌에서 마술과 기예를 곁들여 선보였던 천승 일행의 방문 공연은 주목된다.⁸¹⁾ 천승 일행이 주목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흥행 단체 내에서 성장하는 한 인물 때문이다. 1918년 5월 부산좌 공연은 단순히 부산에서의 흥행으로 끝나지 않았고, 경성까지 이어졌는데 특히 이 순회공연에서 혜성처럼 등장하여 조선인의 관심을 끄는 여성 배우가 있었다.⁸²⁾ 이 배우가 배우자였는데, 당시 소녀였던 배우자는 부산좌의 공연에도 참여하여 자신의 기예와 매력을 뽐냈다.

다음으로, 낭화절, 즉 ‘나니와부시’로 명명되는 일본식 장르에 대해 주의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나니와부시(浪花節) 조선의 판소리에 비견되는 일본의 전통음악으로, 전래의 창 ‘로쿄쿠(浪曲)’라고도 한다.⁸³⁾ 사미센으로 반주를 하고 혼자서 노래를 부르는 가창 양식이었다. 나니와부시는 20세기 중반까지 일본인이 즐기는 연희 양식으로 일제강점기(특히 30~40년대) 나니와부시는 일본에서 한국(조선)으로 전파되고 조선식으로 변용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조선식 나니와부시로 <장렬 이인석 상등병> 등이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본인들을 위한 연희의 일종으로, 1930년대 이전에는 조선인들이 이 음악에 크게 관심을 갖은 바 없었던 이국적인 장르라고 해야 한다.⁸⁴⁾

이러한 나니와부시 가운데에서 ‘낭극(浪劇)’으로 지칭되었던 1916년(2월) 장르가 공연되기도 했다.⁸⁵⁾ 또한 1917년(11월)에는 여류낭화절

리[淨琉璃] 일행 부산좌에서 개연’.

80) 『부산일보』 1918. 5. 3.(조간) 4쪽, ‘천승[天勝]은 10일, 부산좌에서 초일 개연’.

81) 『부산일보』 1918. 5. 13.(조간) 3쪽, ‘부산좌의 천승[天勝], 매일 밤 입추의 여지없음’.

82) 『매일신보』 1918. 5. 14. 3쪽, ‘천승(天勝)의 제자 된 배우자(褻龜子), 경성 와서 첫 무대를 치르기로 하였더라’.

83) 박영산, 「변사(辯士)와 벤사(弁士)의 탄생에 대한 비교연구」, 『Comparative Korean Studies』 21- 1, 2013, 155쪽.

84) 나니와부시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했다(김남석, 「일제 강점기 김천 지역 극장의 역사와 활동상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69, 2017).

85) 『부산일보』 1916. 2. 9.(조간) 5쪽, ‘부산좌의 낭극(浪劇)’.

(女流浪花節) 吉田小奈良 일행이 대구와 부산에서 공연한 바 있다.⁸⁶⁾

이처럼 부산좌는 일본인을 위한 공연장이었고, 그로 인해 부산좌를 방문하는 일본인 공연 단체는 상당한 숫자에 달했다. 더구나 부산좌는 일본과 가까웠고, 비교적 이웃 도시들로 방문 공연을 벌이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의 극단들은 조선 공연을 기획할 때 부산 공연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관부 연락선이 도착하는 곳이 부산이었고, 경부철도와 인근 도로가 모여드는 곳이 부산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일본으로 돌아갈 때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도시가 부산이었기 때문이다.

2. 활동사진관으로서 부산좌

부산좌는 영화 상영관으로 일찍부터 각광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로서는 1915년 무렵부터 부산좌가 활동사진관으로 활용되었다는 증거만 발굴되고 있다. 1915년 4월 활동사진 <희무정(噫無情)>의 상영은 대표적인 경우이다.⁸⁷⁾ 당시 언론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문호의 작품을 원작으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는 기사를 게재했고, 이를 통해 부산좌는 부수적인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1915~1916년만 해도 부산좌에서는 다양한 활동사진 상영이 시도되었다. 1915년 8월 자선활동사진대회,⁸⁸⁾ 1915년 10월 연쇄극 상연,⁸⁹⁾ 1917년 시찰단의 영화 영사,⁹⁰⁾ 1918년 4월 연쇄극 공연⁹¹⁾ 등이 이에 해

86) 『부산일보』 1917. 11. 4. 4쪽, '소나양[小奈良]은 내일 부산좌에서 공연'.

87) 『부산일보』 1915. 4. 17.(조간) 7쪽, '활동사진 '희무정(噫無情)', 23·24일 양일 부산좌에서'.

88) 『부산일보』 1915. 8. 26. 5쪽, '자선활동사진; 오늘 내일 이틀 밤 부산좌에서'.

89) 『부산일보』 1915. 10. 21.(조간) 5쪽, '부산좌의 연쇄 연극'.

90) 『부산일보』 1917. 10. 28. 4쪽, '총독부 주최 남양[南洋] 남지[南支] 시찰단의 활동사

당하는 사례이다. 특히 1915년 10월 연쇄(연)극 상연은 조선 최초의 연쇄연극으로 비정되기도 했다.⁹²⁾ 전술한 대로, 1915년 10월 집중되는 연쇄극 상연은 千歲定吉 흥행주의 등장과 일차적으로 관련된다.

1915년 10월 부산좌에서는 水野觀月 일행의 내방 공연이 시행되었고, 이때 연쇄극이 공연되었다.⁹³⁾ 연쇄극은 한때 무대극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주되어, 조선의 신파극단(대중극단) 역시 적극적으로 제작과 공연에 나선 바 있다. 확실히 연쇄극은 연극이 지니는 장소적 편협함(무대에서 극중 공간을 재현해야 하는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으로 간주된 바 있다.

하지만 연쇄극 자체가 지니는 한계나 제약 역시 무시하기 힘들다. 일단 사전에 준비된 영상을 통해 서사와 공간을 확장한다는 기본 취지는 실제 공연 현장에서는 어색한 설정이나 무리한 합성으로 인해 관객감의 결여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지곤 했다. 최초에는 신기한 장르로 설정되지만, 점차 제작에 비해 상연의 효율성이 저하되면서, 제작과 상연을 기피하는 풍조를 낳기도 했다.

1910년대 부산좌에서 연쇄극 공연은 사실 이러한 후대의 문제와는 거리를 둔 것이기는 했다. 왜냐하면 당시까지만 해도 연쇄극은 낯선 것이었고, 아직은 그 폐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점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千歲定吉의 새로운 장르 도입은 기본적으로 부산좌의 혁신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쇄극보다는 무성영화의 도입과 상연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진 부산좌에서 영사

91) 『부산일보』 1918. 4. 6. 4쪽. ‘활동 순환(4) ; 부산좌의 연쇄극’. 『부산일보』, 1918. 4. 10. 4쪽, “연극소식’ 부산좌’.

92) 『부산좌』 <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Index?local=busan> (검색일: 2017. 6. 17.)

93) 『부산일보』 1915. 10. 17. (조간) 5쪽, ‘부산좌의 연쇄 연극’.

1917년 ‘남양 활동사진’을 공개한 사안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자료 8> 활동사진관으로서 부산좌(4)

위 기사는 부산좌에서 공연된 활동사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정보는 상연 콘텐츠의 분석에서 더욱 유용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목되는 사안이 있다. 그것은 종래의 알려진 것과는 달리, 부산좌가 연극상설관으로 운영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암시에 해당한다.

기존 견해로는 부산좌가 연극전용관으로 운영되었다는 주장이 정설로 수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입장은 부산좌가 지니는 연극극장으로서의 특성, 특히 가부키나 신과극에 유리한 극장 구조에 기인했으며, 내부에 회전무대를 갖추고 있었다는 주변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⁹⁵⁾ 이러한 주장 중 일부는 사실로 확인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부산좌가 연극전용관이었다는 주장은 재고를 요한다고 하겠다. 더구나 1915년 이후 부산좌의 공연 레퍼토리에서 영상의 출연은 그 빈도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종래의 평가를 재고하게 만든다. 부산좌의 용도를 밝히는 명칭이 굳이 필요했다면, 그것은 다목적 상연관이라

94) 『부산일보』 1917. 10. 25. 4쪽, ‘남양 활동 사진, 부산좌에서 영사 공개’.

95) 홍영철, 앞의 책, 2001, 81쪽.

는 표현이 더욱 적확할 것이다.

3. 다목적 공간으로서 부산좌

부산좌는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되어, 가령 연예대회장,⁹⁶⁾ 연주(회)장,⁹⁷⁾ 총회장,⁹⁸⁾ 친목회장,⁹⁹⁾ 투견장,¹⁰⁰⁾ 강연장,¹⁰¹⁾ 가정강화회장,¹⁰²⁾ 다화회장¹⁰³⁾ 등으로 사용된 흔적이 남아 있다. 이러한 공간 활용은 주로 1920년대까지 일본인의 취향과 기호를 따르고 있다. 실제로 부산좌는 일본인 소유의 극장이었고, 일본인 거주 지역 내에 위치했기 때문에 주로 일본인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극장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부산좌에서 조선인 연극이 공연된 시점은 1920년대 전후로 보이며, 1921년 동우회의 연극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¹⁰⁴⁾ 1921

- 96) 『부산일보』 1915. 4. 11.(조간) 7쪽, ‘연예소식, 부산좌, 활동사진, 소인정유리회[素人淨琉璃會]’. 『부산일보』 1916. 1. 22. 5쪽, ‘우편국원 대연예회; 오늘 22일 밤 부산좌에서’. 『부산일보』 1917. 4. 14. 7쪽, ‘역행회[力行會] 연예회; 15일 밤 부산좌에서’. 『부산일보』 1917. 4. 17. 7쪽, ‘부산좌의 연예회’.
- 97) 『부산일보』 1915. 6. 8. 5쪽, ‘고춘[鼓村]씨 연주회, 오는 12일 부산좌[釜山座]에서’. 『부산일보』 1915. 6. 16. 5쪽, ‘부산좌의 음악회’. 『부산일보』 1917. 4. 11. 7쪽, ‘음악회 성황; 부산좌 만원’. 『부산일보』 1917. 11. 22. 4쪽, ‘사립실습여학교의 음악회 연주곡목; 24, 25일 양일 밤 부산좌에서’. 『부산일보』 1918. 12. 4. 2쪽, ‘부산사립실습여학교 음악회 7일 부산좌에서’.
- 98) 『부산일보』 1915. 4. 3.(조간) 9쪽, ‘본사 이전 당시의 축하회(부산좌); 개천[芥川] 사장의 연설’. 『부산일보』 1915. 6. 1. 2쪽, ‘재향군인분회 총회, 오는 6일 부산좌[釜山座]에서’.
- 99) 『부산일보』 1915. 5. 9.(조간) 2쪽, ‘오늘 9일 부산좌에서 방장인[防長人] 친목회 개최’.
- 100) 『부산일보』 1917. 9. 9. 4쪽, ‘투견상박[鬪犬相撲]은 12일 밤부터 부산좌에서’.
- 101) 『부산일보』 1917. 9. 30. 4쪽, ‘어가신[於伽唵] 강연회, 오늘 부산좌에서’. 『부산일보』 1918. 5. 2.(조간) 2쪽, ‘부산좌에서 영소[永沼] 중장 강연’.
- 102) 『부산일보』 1918. 1. 15.(조간) 4쪽, ‘부산교육회 후원 부산좌에서 가정 강화[講話]회’.
- 103) 『부산일보』 1918. 1. 15.(조간) 4쪽, ‘승옥[昇玉] 고별 다화회[茶話會]; 20일 정오 부산좌에서’.
- 104) 『동아일보』 1921. 7. 12. 3쪽, ‘동우연극(同友演劇)의 제1막(第一幕)’.

년 자료에서는 부산좌에서 공연한 조선인 연극 상황과 음악회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¹⁰⁵⁾ 이 음악회를 주도한 초량청년회는 음악회와 함께 신연극 공연을 추진했는데, 해당 극장은 부산좌였다. 1921년 시점에 이미 초량좌가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초량청년회는 공연장으로 부산좌를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다소 의외이면서, 동시에 조선인 극장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경우라고 하겠다.

부산좌는 부산을 대표하는 극장이었고, 최초의 대형 극장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조선인이 선호하는 공연 콘텐츠를 공연한 극장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1923년 소실될 때까지 기본적으로는 부산 거주 일본인의 기호와 취향을 고려한 경영 정책을 지켜온 극장이었다. 하지만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산좌에서 조선인의 공연과 관람 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며, 만일 1923년 소실되지 않았다면 대형 공연이 가능했다는 장점으로 인해 더욱 조선인 극단(단체)에게 주목받는 극장이 되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부산좌는 부산에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함축한 극단을 초빙하고, 그러한 콘텐츠를 유통 보급하는 역할을 했으며, 다양한 계층의 기호를 충족시키면서 극장을 부산 문화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매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5. 부산좌의 부흥 논의

부산좌는 1923년 3월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 화재는 건물 16호를 전소시키고, 동시에 8호를 반소시키며, 손해(액) 15만원의 참사를 가져왔다. 화재의 발화점이 부산좌였는데, 연극장으로 소개되었던 이 극장에서 불이 나서 이웃 건물을 파괴하였으며, 흥행 주인 역시 이 불로 사망

105) 『매일신보』 1921. 3. 12. 4쪽, ‘지방통신:부산신연극단, 14일 부산좌(釜山座)에서 흥행’.

하였다. 이것은 1907년 건립된 부산좌의 일차 전소에 해당한다.¹⁰⁶⁾

부산좌가 소멸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부산 지역민과 여론 단체들은 부산좌의 부활을 기대하는 지역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했다.¹⁰⁷⁾ 대략 이러한 여론 형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1925년 전후 무렵이다.¹⁰⁸⁾

부산좌를 대체하여 영업 중이었던 국제관 역시 화재로 반파 당하자, 부산에서는 부산좌의 부흥(復興) 여부를 논의하는 여론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대규모의 사업 출자자들이 그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결과 부산좌의 자리에 약 9만원의 자본금을 투여하여 새로운 극장을 짓는 설립안이 제안되었고, 최신식 설비와 대규모 극장 시설(부대시설까지 포함)을 갖춘 극장을 짓는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특히 설립 계획상으로, 새롭게 건설하고자 했던 극장은 일본 취향의 ‘이상적 대극장’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극장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상적 극장으로서 신 부산좌는 휴게실(관람 대기 장소), 각다실(喫茶室) 등의 편의 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완비된 방화설비를 또한 구비해야 했다. 더구나 부산 지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인식적 협의를 마련하여 극장 건설과 운영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도출되었다.

하지만 신부산좌는 문헌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1929년 가을에 낙성식을 예상하고 있던 새로운 부산좌의 부흥 선언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대해서는 홍형철도 동일한 의견을 취하고 있다. 홍영철은 “화재 사고로 폐관된 후 설립자 大池忠助는 부산좌의 복

106) 『동아일보』 1923. 3. 23. 3쪽, ‘부산시에 대화재(大火災)’.

107) 『부산일보』 1925. 6. 25. 7쪽, ‘부민의 교망[翹望]하는 부산좌 부활의 계획 크게 진척해 곧 구체화될 모양’.

108) 『부산일보』 1929. 3. 20.(석간) 4쪽, ‘일본취미의 이상적 대극장 ; 구부산좌 터에 9만원으로’.

원을 목표로 수차례 걸쳐 쟁점화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고 단언하고 있다.¹⁰⁹⁾

하지만 이 진술은 절반만 사실에 가깝다. 1929년 3월에 천명된 부산좌 부흥 논의가 비록 온전한 부산좌의 재건으로 실현되지는 못했다할지라도, 그 결과는 분명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다. 구부산좌의 후신으로 설립된 극장은 중앙극장이었다. 전술한 대로 大池忠助는 밀양의 사업가金森新吉과 함께 출자하는 형식으로 초량동에 중앙극장을 건립했고, 이후 그 운영권을 아들에게 넘겨주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중앙극장은 명칭과 위치가 다를 뿐이지, 신부산좌였다고 할 수 있겠다. 중앙극장의 신축 낙성 시기는 1930년 3월로, ‘일본취미의 이상적 대극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강력한 쟁점이 표출된 지 꼭 1년 후였고, 애초 신부산좌의 개관이 예정된 시점으로부터 반년 가량 후였다.¹¹⁰⁾

VI. 결론

부산을 개항한 일본인들은 부산역에서 송도 해수욕장에 이르는 구도심(이 논문에서는 부산의 극장가라고 지칭하기도 했음)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였다. 임진왜란 이후부터 부산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의 초량 왜관이 확대되었고, 그들의 거주와 교역 그리고 생활과 유희에 관련된 시설이 확충되기 시작했다. 특히 개항장 조규에 의거하여 해가 진 이후에는 일본인 거주지역으로 돌아와야 하는 약정이 작용했고, 결과적으로 부산 일본인 거류지에는 자신들의 극장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109) 홍영철, 앞의 책, 2001, 83쪽.

110) 『매일신보』 1930. 3. 1. 7쪽, ‘중앙극장(中央劇場) 신축 낙성(新築 落成) 근일 개관할 터’

행좌를 비롯하여 송정좌, 부귀좌, 부산좌 등이 그러한 극장이고, 일제 강점 이후에는 변천좌, 동양좌, 보림관, 초량좌 등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극장 시설은 이후 상인들의 개항장 이주(최초에는 인천과 원산으로)를 통해 해방 지역의 극장 신설의 단초가 되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부산좌는 부산에 등장한 초기 극장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조선 각 지역의 지역극장 건설과 전파를 유도했다는 의미도 지니게 된다.

부산좌는 부산의 대표적인 거상 大池忠助와 부산 상인들의 공조로 이루어진 극장이었다. 극장의 설계와 극장의 운영 역시 부산의 상인들이 맡았으며, 이로 인해 부산을 대표하는 극장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게 지닐 수 있었다.

부산좌의 역사(내력)에서 1915년은 중요한 기점이 된다. 이 시점을 중심으로 흥행주가 등장했고, 이 흥행주는 부산좌의 경영 방침을 변화시켰다. 일단 부산좌가 그동안 주력하던 연극 공연에서 연쇄극이라는 첨단 장르를 수용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다고 연극 공연을 작파하거나 경영 목표 자체를 전면 변화시켰다고는 할 수 없지만, 주목되는 세부적 변화가 발생했다. 일단 1914년 경까지 주로 전념하던 소인극 위주의 행사를 전문적인 수준의 극단 공연으로 변화시킨 점이다. 기본적으로 부산좌는 다목적 극장이었기에 기존 견해대로 연극상설관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부산좌에서 공연되는 연극 관련 작품은 매우 다양하고 또 비중이 높았다. 1915년 이후에도 소인극 공연이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점차 일본 본토에서 내방하는 극단의 공연 비중이 증가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에 영화의 상연 빈도도 증가하면서, 부산좌는 다채로운 장르를 공연하는 극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1915년 흥행주는 부산좌의 외관과 시설을 일부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본래 부산좌는 대형극장이었다.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객석 크기를 자랑했고, 무대 시설과 넓이 역시 상당하여 대규모 공연이 가능

했다. 따라서 불필요한 공간을 제거할 수 있었다. 1915년 10월 인근 무렵(1916년 6월)에 3층을 제거하는 공사를 단행했고, 극장 내부에도 영사 시설을 확충 보완한 흔적을 남겼다.

이러한 변화는 1915년 이후 부산좌가 부산 지역민들에게 차지하는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 결과 1920년대 인근 무렵(화재로 소실되는 1923년까지) 부산좌의 대외적인 활용 빈도는 매우 증가했다. 각종 지역 행사가 이곳에서 열렸고, 일본인 전용극장이라는 인식도 변모하였다. 조선인들의 행사 참여나 관극 체험도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부산의 서로 다른 거주자들이 공영하는 극장으로 변모해나갔다.

1923년 화재 사건이 다소 아쉬운 것은 이러한 변화 추세를 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점에서 찾을 수 있겠다. 조선인들의 부산좌 사용이 더욱 증가했다면 부산좌의 역할과 위상도 한결 더 증대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1923년 전소는 이러한 가능성을 붕괴시키고 말았다.

부산좌의 부활 운동은 大池忠助 측의 제기로 이루어진 사안이기도 했지만, 자연스럽게 부산좌의 경영에 참여했던 유지들과 대형 극장의 필요성이 결합되어 나타난 지역 여론이기도 했다. 특히 부산좌가 사라진 부평정 일대에는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보래관까지 이동해야 극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문화적 황폐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평정 일대 주민들에게는 부산좌의 재건이 오락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1930년 중앙극장은 이러한 염원과 기대 속에서 신축된 극장이었다. 비록 부산좌라는 이름을 이어받지는 못했지만, 부산의 극장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기약할 수 있는 시설과 인맥을 얻은 극장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다. 특히 밀양 상인이자 투자자 金森新吉의 등장은 부산과 이웃 도시 사이의 극장업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부산이 지닌 극장 문화의

확대 가능성을 접치게 한다. 완전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金森新吉이 밀양 역전(밀양 읍내와 비교되는) 밀양극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은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 극장업(자) 간의 상호 공조 내지는 협력 관계의 단초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하겠다.

부산좌의 의의는 문화의 유통과 확산의 측면에서 일단 찾을 수 있다. 부산좌는 부산의 우수한 단체와 다양한 장르가 수입되고 또 관람되는 공간이었다. 특히 부산으로 수입되는 대형 연극은 부산좌에서 공연될 확률이 높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다른 극장에 비해 관객들의 선호할 만한 장점을 다량 확보하고 있었다고 해야 한다.

다음으로 부산좌는 연극을 위주로 하는 극장이었다는 일반적 이해와는 달리 연쇄극의 도입이나 각종 영사 대회와 주도의 주도 등으로 영화관으로서의 역할을 농도 깊게 수행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산좌는 영화와 연극의 기능을 혼용하는 공간으로 작용했고, 여기에 일본의 구극(가부키)와 신연극(신파극과 각종 최신극)이 가미되는 특수한 효과를 창출했다.

비록 조선인 관람객과 제작자를 위해서는 다소 폐쇄적인 운영 방안을 선보였지만, 1920년대에는 조선인들 사이에서도 주목되는 극장으로 부상한 바 있다. 조선인들을 위한 극장으로 인정될 정도는 아니었지만, 조선의 연극 문화와 문화 활동에 적지 않은 자극을 주었다는 점에서는 부산의 중요한 지역 극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부산좌가 위치했던 1910~40년대 부산 극장가(‘부산 극장 벨트’)는 정밀한 관찰을 요하는 지역이다. 그 일부로서, 그리고 한 중심으로서 부산좌는 당시 부산 극장가가 담보한 특성과 개성을 보여주는 한 축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부산 극장가의 각종 극장의 실체를 밝히면, 상호 연관(성) 관계를 통해 부산좌의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실체(비밀) 역시 발굴되리라 믿는다. 본 연구는 그 초석이 되는 연구이며, 앞으로 확대된 연구로 나아가는 시작점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1. 자료

- 『경성일보』 1915. 11. 8. 3쪽, ‘盛なる芸術座一行の乗込’.
- 『대한매일신보』 1907. 10. 15. 2쪽, ‘기선회사설립’.
- 『동아일보』 1921. 7. 12. 3쪽, ‘동우연극(同友演劇)의 제1막(第一幕)’.
- 『동아일보』 1923. 3. 23. 3쪽, ‘부산시에 대화재(大火災)’.
- 『동아일보』 1935. 10. 13. 3쪽, ‘영흥극장(永興劇場) 수개관(遂開館)’
- 『동아일보』 1939. 3. 24. 5쪽, ‘국적 불명의 부활」(안중화)’.
- 『매일신보』 1912. 3. 3. 2쪽, ‘조우(朝郵) 창립총회’.
- 『매일신보』 1913. 2. 13. 2쪽, ‘실업가 초대회’.
- 『매일신보』 1916. 4. 23. 3쪽, ‘예성좌의 근대극, 유명한 카츄사’.
- 『매일신보』 1917. 1. 24. 2쪽, ‘지방거금(地方贖金) 받기자’
- 『부산일보』 1918. 4. 6. 4쪽, ‘활동 순환(4) ; 부산좌의 연쇄극’.
- 『매일신보』 1918. 5. 14. 3쪽, ‘천승(天勝)의 제자 된 배구자(裴龜子), 경성 와서 첫 무대를 치르기로 하였더라’.
- 『매일신보』 1918. 5. 25. 3쪽, ‘기술(奇術)의 배구자’.
- 『매일신보』 1918. 5. 25. 3쪽, ‘평화의 신과 천사’.
- 『매일신보』 1918. 5. 30. 3쪽, ‘배구자의 기술, 빈손에서 나오는 본사기’.
- 『매일신보』 1921. 3. 12. 4쪽, ‘지방통신:부산신연극단, 14일 부산좌(釜山座)에서 흥행’
- 『매일신보』 1930. 3. 1. 7쪽, ‘중앙극장(中央劇場) 신축 낙성(新築 落成) 근일 개관 할 터’.
- 『부산일보』 1914. 12. 10.(조간) 5쪽, ‘부식농원[扶殖農園] 자선연예회 ; 오늘 밤 부산좌[釜山座]’.
- 『부산일보』 1915. 4. 3.(조간) 9쪽, ‘본사 이전 당시의 축하회(부산좌); 개천[芥川] 사장의 연설’.
- 『부산일보』 1915. 4. 15.(조간) 7쪽, ‘실습여학교의 연예회, 17일 밤 부산좌에서’.
- 『부산일보』 1915. 4. 16.(조간) 7쪽, ‘실습여학교의 연예회 번조, 17일 밤 부산좌에서’.
- 『부산일보』 1915. 5. 6. 4쪽, ‘부산좌의 소설극[小雪劇]’
- 『부산일보』 1915. 6. 8. 5쪽, ‘『고촌[鼓村]씨 연주회, 오는 12일 부산좌[釜山座]에서’.
- 『부산일보』 1915. 6. 16. 5쪽, ‘부산좌의 음악회’.
- 『부산일보』 1915. 8. 2. 3쪽, ‘대교[大橋] 교육극단, 6일부터 부산좌에서’.

- 『부산일보』 1915. 8. 9. 3쪽, ‘부산좌 4일째 광언[狂言]’.
- 『부산일보』 1915. 8. 30. 3쪽, ‘부산좌의 월로태부[越路太夫]; 환영 정유리[淨琉璃] 어물[語物]은 <합방>’.
- 『부산일보』 1915. 10. 10.(조간) 2쪽, ‘사람의 인상[印象]; 부산부협의회원 五島甚吉 군’.
- 『부산일보』 1915. 10. 13.(조간) 5쪽, ‘부산좌의 개량; 경영자는 천세[千歲] 소방조 소두[小頭]’.
- 『부산일보』 1915. 10. 21.(조간) 5쪽, ‘부산좌의 연쇄 연극’.
- 『부산일보』 1915. 10. 25.(조간) 3쪽, ‘부산좌의 연쇄연극 대할인’.
- 『부산일보』 1915. 11. 21.(조간) 5쪽, ‘부산좌의 신파극’.
- 『부산일보』 1915. 11. 23.(조간) 5쪽, ‘부산좌의 자연극[自然劇]’.
- 『부산일보』 1915. 4. 11.(조간) 7쪽, ‘연예소식, 부산좌, 활동사진, 소인정유리회[素人淨琉璃會]’.
- 『부산일보』 1915. 4. 17.(조간) 7쪽, ‘활동사진 ‘회무정[噫無情], 23·24일 양일 부산좌에서’.
- 『부산일보』 1915. 5. 9.(조간) 2쪽, ‘오늘 9일 부산좌에서 방장인[防長人] 친목회 개최’.
- 『부산일보』 1915. 5. 26.(조간) 1쪽, ‘회의소 의원의 면영(17) 부산상업회의소평의원 중촌준송[中村俊松]군’.
- 『부산일보』 1915. 6. 1. 2쪽, ‘재향군인분회 총회, 오는 6일 부산좌[釜山座]에서’.
- 『부산일보』 1915. 6. 16. 5쪽, ‘소년낭화절[少年浪花節] 오다, 17일부터 부산좌에서’.
- 『부산일보』 1915. 6. 25. 5쪽, ‘부산좌의 가무기[歌舞伎], 25일 오후 6시 첫날’.
- 『부산일보』 1915. 8. 22. 5쪽, ‘부산좌의 정유리[淨琉璃]; 월지조[越之助]의 염피로[簾披露]’.
- 『부산일보』 1915. 8. 26. 5쪽, ‘자선활동사진; 오늘 내일 이틀 밤 부산좌에서’.
- 『부산일보』 1915. 9. 11.(조간) 2쪽, ‘전 조선 상업회의소연합회 위원’.
- 『부산일보』 1916. 1. 22. 5쪽, ‘우편국원 대연예회; 오늘 22일 밤 부산좌에서’.
- 『부산일보』 1916. 4. 16.(조간) 5쪽, ‘부산좌[釜山座]의 모양 교체; 3층을 없애다’.
- 『부산일보』 1916. 9. 22.(조간) 7쪽, ‘부산좌의 천승[天勝]’.
- 『부산일보』 1916. 10. 4. 7쪽, ‘여승[呂昇]은 8일 초일; 부산좌[釜山座]에서 개최’.
- 『부산일보』 1916. 12. 1. 5쪽, ‘부산좌에서 정류리대회’.
- 『부산일보』 1916. 2. 9.(조간) 5쪽, ‘부산좌의 낭극[浪劇]’.
- 『부산일보』 1916. 12. 30. 3쪽, ‘부산좌[釜山座] 춘지거[春芝居]’.

- 『부산일보』 1917. 4. 11. 7쪽, ‘음악회 성황; 부산좌 만원’.
- 『부산일보』 1917. 4. 14. 7쪽, ‘역행회[力行會] 연예회; 15일 밤 부산좌에서’.
- 『부산일보』 1917. 4. 17. 7쪽, ‘부산좌의 연예회’.
- 『부산일보』 1917. 4. 28. 7쪽, ‘강담사[講談師] 신전박도[神田佑道]; 오는 28일 부산좌에서’.
- 『부산일보』 1917. 7. 5.(조간) 4쪽, ‘예술좌[藝術座]의 초일, 8일 부산좌에서 초일’.
- 『부산일보』 1917. 7. 8.(조간) 4쪽, ‘예술좌의 공연물’.
- 『부산일보』 1917. 9. 9. 4쪽, ‘투견상박[鬪犬相撲]은 12일 밤부터 부산좌에서’.
- 『부산일보』 1917. 9. 30. 4쪽, ‘어가신[於伽唵] 강연회, 오늘 부산좌에서’.
- 『부산일보』 1917. 10. 9. 5쪽, ‘철[鋏], 인[靱] 양태부[兩太夫] 본월 중순 부산좌에 오다’.
- 『부산일보』 1917. 10. 25. 4쪽, ‘남양 활동 사진; 부산좌에서 영사 공개’.
- 『부산일보』 1917. 10. 27. 4쪽, ‘고인[古靱]의 소진[沼津]; 대관 문학[文樂] 정유리[淨琉璃] 일행 부산좌에서 개연’.
- 『부산일보』 1917. 10. 28. 4쪽, ‘총독부 주취 남양[南洋] 남지[南支] 시찰단의 활동 사진 부산좌에서 영사’.
- 『부산일보』 1917. 11. 4. 4쪽, ‘소나양[小奈良]은 내일 부산좌에서 공연’.
- 『부산일보』 1917. 11. 22. 4쪽, ‘사립실습여학교의 음악회 연주곡목; 24, 25일 양일 밤 부산좌에서’. 1918. 1. 1.(조간) 4쪽, ‘大池忠助의 사진’.
- 『부산일보』 1918. 1. 1.(조간) 4쪽, ‘부산부협의회원 五島甚吉 씨의 새해 인사말’.
- 『부산일보』 1918. 1. 1.(조간) 4쪽, ‘五島甚吉의 사진’.
- 『부산일보』 1918. 1. 15.(조간) 4쪽, ‘부산교육회 후원 부산좌에서 가정 강화[講話]회’.
- 『부산일보』 1918. 1. 15.(조간) 4쪽, ‘승옥[昇玉] 고별 대화회[茶話會]; 20일 정오 부산좌에서’.
- 『부산일보』 1918. 4. 10. 4쪽, ‘연극소식’ 부산좌’.
- 『부산일보』 1918. 5. 2.(조간) 2쪽, ‘부산좌에서 영소[永沼] 중장 강연’.
- 『부산일보』 1918. 5. 3.(조간) 4쪽, ‘천승[天勝]은 10일, 부산좌에서 초일 개연’.
- 『부산일보』 1918. 5. 13.(조간) 3쪽, ‘부산좌의 천승[天勝], 매일 밤 입추의 여지없음’.
- 『부산일보』 1918. 9. 12.(석간) 2쪽, ‘경산애회[京山愛虎] 개연, 11일부터 부산좌에서’.
- 『부산일보』 1918. 12. 4. 2쪽, ‘부산사립실습여학교 음악회 7일 부산좌에서’.
- 『부산일보』 1918. 12. 29. 3쪽, ‘부산좌[釜山座]의 춘지거[春芝居]’.
- 『부산일보』 1925. 6. 25. 7쪽, ‘부민의 교망[翹望]하는 부산좌 부활의 계획 크게 진척해 곧 구체화될 모양’.

- 『부산일보』 1929. 3. 20.(석간) 4쪽, ‘일본취미의 이상적 대극장; 구부산좌 터에 9만 원으로’.
- 『부산일보』 1929. 8. 14. 9쪽, ‘방화[防火] 선전용 영화(감포)’.
- 『부산일보』 1938. 10. 8.(석간) 2쪽, ‘千歲定吉 씨 근황’
- 『조선일보』 1936. 5. 17. 7쪽, ‘동명극장처분문제 임대차제로 낙착’.

2. 저서 및 논문

- 김남석, 『극장을 짓는 항구의 상인들—조선의 항구 도시에서 극장을 건립·운영한 상인들의 내력과 상호 관련성을 중심으로』, 『영남학』29,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6.
- _____, 『조선의 개항장에 건립된 인천 가무기좌에 관한 연구』, 『동북아시아문화연구』 46,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6.
- _____, 『함흥의 지역극장 동명극장 연구』, 『동북아시아문화연구』44,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5.
- 박영산, 『변사(辯士)와 벤시(弁士)의 탄생에 대한 비교연구』, 『Comparative Korean Studies』21- 1, 국제비교한국학회, 2013.
- 안종화, 『신극사 이야기』, 진문관, 1955.
- 이호걸, 『식민지 조선의 문화사업 극장업』, 『대동문화연구』6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 이희환, 『인천 근대연극사 연구』, 『인천학연구』5, 인천학연구원, 2006.
- 조순자, 『무성영화시대 상설극장 관현악단과 지방순업팀 악사들의 조직 구성 및 역할』, 『음악과민족』46, 민족음악학회, 2013.
- 홍선영, 『예술좌의 만선순업과 그 문화적 파장』, 『한림일본학』15, 한림대학교일본학연구소, 2009.
- 홍영철, 『부산 영화 100년』, 한국영화자료연구원, 2001.
- _____, 『부산극장사』, 부산포, 2014.
- 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濟時報社, 1921~1941.

| Abstract |

A study on Busanjwa as a local theater in Busan

Kim, Nam-Seok

Busanjwa is a local theater built on July 15 in 1907, operated for about 16 years, and burned down in March 1923 with its own fire. The location of the theater was Busan Buupyeongjeong (currently Bupyeongdong) 2-jeongmok street), and the owners of the theater were Busan's leading merchants, including Oike Tadasuke. Busan residents invested capital in the form of a joint venture, and founded Busanjwa as a large theater and started its operations in the early days. The period from 1907 to 1914 corresponds to this early period. At this time, 'Busanjwa' was active in local events such as residents' entertainment or non-specialist performances. Although it did not eradicate dramas or movies, it would be correct to say that the result is relatively insensitive to this genre problem. Since Busanjwa was destroyed by fire, public opinion on the reconstruction of Busanjwa has been formed. After this, Oike Tadasuke called for a new plan for Busanjwa. In particular, in 1929 a concrete plan for constructing a new Busanjwa('Ideal Grand Theater') was announced, in the end it resulted in the construction of Junganggeukjang('Central Theater').

Key Words : Busan, Busanjwa, theater,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Oike Tadasuke

